

醫哲學에 대한 小考

慶熙大學校 助敎授 朴 贊 國

I. 人類의 오만

사람은 자신의 地位와 立場에 따라서 여러가지 偏見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偏見은 자칫 오만을 부르기가 쉽다.

사람이 여러가지 편견과 오만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사람이 사람이라는 事實을 가지고 가지는 偏見보다 人類에게 가장 普遍的이며 歷史的인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 人類의 能力이 自然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自認하면서 살 때는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덜하였다. 物質文明의 發達로 일부의 人類가 衣食住를 거의 걱정없이 解決하게 되자 이들의 偏見과 오만을 그 前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自然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人類에게까지 擴大시켜 自然을 수단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정복하듯이 힘에 의하여 人間도 征服될 수 있다는 기계적 思考를 하게 된 것이다. 즉, 江에 다리를 놓아 건너고, 山을 터널을 뚫고, 바다엔 배를, 하늘엔 비행기를 띄우듯이 人體도 짧고, 굵고, 잇고, 잘라내고, 갈아끼우며 寄生하려는 작은 벌레를 죽이려고 毒藥을 마구 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오만한 人間の 橫暴은 自然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終局에 人間 自身도 파멸시키고 말리라.

자! 그러면 人間の 疾病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온갖 手段과 方法을 동원해서 퇴치시켜야 한 악마와 같은 것인가? 事實 世上의 모든 惡이 그 씨가 따로 있음이 아니라 善과 正義가 행하여지지 않는데에서 바로 생겨나는 것이다. 즉 惡이란 바로 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健康속에서 나온 것이 病이요 健康의 維持에 절대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좀더 깊이 생각하여 본다면 生命體란 健康과 疾病을 따지기 이전에 生命體의 存在에 즉 필요한 어떤 法則에 의하여 살고 있는 것이요, 健康과 疾病이란 그 生命現象의 일부에 붙인 名稱에 불과하다.

요즈음, 사람들이 疾病이 마치 惡魔나 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疾病은 없어도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偏狹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적지아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疾病이 없다면 健康이 계속 유지되고 人類에게 행복한 나날이 유지되리라 작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뿐이다. 즉, 人類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아도 疾病이 오지 않는다면 누가 自身の 잘못을 반성하며 自身の 건강을 돌보겠는가? 人類는 自身の 잘못으로 病苦가 계속되어도 이를 감내하고 惡한 行動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病的 苦痛마저 없는 人類社會는 중국에 어떻게 될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疾病은 하느님께서 인류에 내린 자비요 藥과 같은 것이다.

요즈음 洋醫學界에서는 癌이라는 病을 征服한다는 말을 흔히 하고 있으며, 신문지상에 다치 어떤 힌두가지가 해결되면 곧 癌이라는 疾病이 모두 치유될 것처럼 떠들고 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癌이라는 病이 어찌하여 생기는지는 不問에 부치고 어떤 藥만을 가지고 이를 정복하려는 것은 人間の 오만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즉 든 많은 무지한 부모가 아들의 비행을 돈으로든 해결하려 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한두명의 不良한 범죄자를 처형하여 해결하려는 政策과 두엇이

다를 수 있겠는가?

사람이란 自然의 秩序를 무시하고, 社會의 규범을 어기고, 自身을 속이는 생활을 할 때는 어떠한 疾病도 올 수 있으며, 癌만으로도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오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오만으로 생긴 疾病을 오만으로 치료하지 말고 오만을 버릴 때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II. 醫學의 哲學과 倫理

요즘 신문지상이나 雜誌에 醫療倫理에 對한 기사가 적지 아니 실리고 있다.

醫療倫理도 이제 먼 先進國의 問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아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醫療의 倫理란 왜 대두되게 되었는가?

醫療의 수준이 낮을 때에는(現代醫學者들의 주장) 이러한 問題가 提起되지 아니하였다.

즉, 20年전까지만 하여도 임신중절이 社會問題로 등장되지 않았고, 安樂死가 世人의 關心을 集中시키지 못하였다.

즉, 奇形兒의 中絶도 과거에는 그리 問題가 되지 않았다. 사실 예전에는 產母의 腹中에 있는 아이가 奇形兒인지 알 수 있는 方法도 있지 않았고 미리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심한 奇形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生命을 維持시킬 능력이 없으면 그대로 死亡하는게 보통이요, 이에 對하여 아이의 生命을 억지로 연장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죽게 버려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現代醫學의 發達は 그냥두면, 곧 죽을 아이도 수술이나 여러가지 현대기계를 동원한 처치를 하면 완전한 人間은 아니더라도 生命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아이의 父母와 醫師들은 아무리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한없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苦悶을 가져다 주었는가? 醫學의 發達이 아닌가? 醫學이 發達되지 아니하였으면 이러한 問題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論者의 主張을 아주 고지식하고 僥倖된 것이라고 일소에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論者는 여기서 現代 醫學의 學問의 方面에 어딘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때문에 이러한 異議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人間의 오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人間은 宇宙의 萬物을 모두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自然과 神의 攝理를 무시하고 있다.

人間이 하늘을 날고 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나 제발 人間의 生命만은 自然의 攝理에 맡기고 우리 醫師는 단지 그 補助만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醫師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죽는 사람을 없애야 하는 것이 그 一次의 義務이겠지만, 그러나 죽어야 할 사람을 잘 죽게 하는 것도 그 義務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우리 人間은 個人主義가 發達하면서 내가 죽으면 가족도 민족도 없고 국가도 人類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 地球上의 생물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지손과 동료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가고 있는 自然의 現象을 냉철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내가 아니면 아니된다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내 형제 내 자식이 내 후배가 있지 아니한가? 얼마나 여유있고 느긋한 생각인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거의가 죽었고 썩어버린 한 부유한 노인을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人員과 많은 돈, 시간을 허비하여 심장이식을 해놓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양 뺨기는 의사나 이에 현혹되어 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는 대중매체를 보노라면 고소를 금할 수 없다. 그 1人的 生命이 그렇게 귀중한가? 그 많은 人間の 노력을 그렇게 한 사람에게 쏟아야 하는가? 그 1인에 들어간 경비를 잘만 쓴다면, 적어도 수백명의 더 젊고 건강한 人類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는 돈 많고 힘있는 者의 橫暴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자 이렇게 해서 人間の 수명이 연장되고,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면 그때도 번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만약 이미 심장이 나빠지고 신장이 病들어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장기나 人工 장기를 갈아넣어서 그뒤로 건강하게 살았다면, 이는 宇宙의 法則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人類의 아니 宇宙의 善惡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는 人類에게 이득이 오느냐 손해가 오느냐에 있다. 그런데 惡을 行하여 나쁜 疾病에 걸려도 人間의 손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다면 이는 宇宙의 善惡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말 인간이 인간의 生命을 진정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면 이는 人間의 秩序를 송두리채 빼앗아 갈 수 밖에 없다. 人間이 良心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放置한 할수는 없을 것이다.

즉 現代 醫學이 나아가고 있는 方向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人間의 손으로 疾病을 治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病的 治療에 自然治癒力과 생리 기능의 回復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生命의 문제에 있어서는 人間의 손으로 決定하려 말고, 自然과 神의 손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人類는 自然과 神의 위대함을 느끼고 또한 自身의 行爲를 조심하고 自身을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生命의 기본과 醫學

韓醫學에서도 生命의 기본 물질로 精神氣血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생리적 역할이나, 이들에 대한 治療로 處方을 열거하고는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治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왜 그런가? 이는 生命에 대한 경외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人間의 處置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治치의 결과로 인간이 이들을 볼 수 없었기때문이다.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現代醫學을 보라 거의 다반사로 이 생

명의 기본 물질에 대하여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제 마음대로 갖가지 治치를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

1930년경 미국의학회잡지에 다음과 같은 논문이 게재된 일이 있었다. 즉 醫學이 예방에 주력하며 의료시설이 확충되고 의사 수가 늘어났던 50年後에는 인간의 疾病이 근절되어 醫師나 病院이 必要없게 되리라는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내용인가? 오늘날 미국의 醫學界가 어떠한 국면에 처하여 있는가? 醫療費는 국가에 비하여 20년간 4~5배나 올랐어도 불치의 병은 얼마나 많은가? 이는 30년대의 이야기란이 아니다. 현재에도 앞으로 몇년이 지나면 癌症의 난치병으로 알려진 癌이나 심장·신장病 등이 根治되리라는 망상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어딘가 근본적으로 醫學思想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人間이 있는 곳에 疾病은 있게 마련이다. 어찌 疾病이 患者의 건전한 生活과 思想이 없이 단지 醫師나 藥의 힘으로 극복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그러한 藥이 있을 수 없다. 즉 돈이나 권력만 있다면 어떠한 生活을 하든, 어떠한 病에 걸리던 모두 治癒될 수 있다면 그러한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疾病앞에는 돈이 있는 출와 없는 者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만인이 평등하다. 그런데 現代醫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돈이 있는 者는 治療를 받을 수 있고, 없는 者는 治療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生命의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創造한대로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精氣神血이나 人間의 五臟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었으면 한다.

특히 최근에 유전공학의 發達로 인간의 形質마저 변화시키려는 과욕마저 혹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미 體外受精이 이루어졌고, 우전자 치환이 가능한 시점에 정말 만화에나 나온 인간의 遺傳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일이 없을까?

장기이식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각박해지고,

범위도 확폭해지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장기를 가지고 商品化하지 않겠는가? 라는 걱정이 앞선다. 이디 일전 園內日刊誌에 장기의 日本밀수출이 보도된 일이 있다. 이는 장기를 가진 사람이 자의로 자기의 장기를 팔았다하지만 나중에 타의로 자기의 장기를 빼앗기는 事例가 없겠는가? 생각만하여도 끔찍한 일이다.

IV. 機械와 人間

우리는 간혹 현재 미국인의 셈 능력의 저하에 대한 신문의 기사를 보고苦笑을 금치 못하곤 한다. 우리나라라면 국민학교 2학년이면 할 수 있는 셈을 성인 그것도 버젓이 고등교육까지 받은자들이 하지 못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인의 문맹율은 세계 어느나라 못지 않게 높다. 도대체 이는 어찌된 일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라면 가장 잘 살고, 모든 것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가장 유능하고 유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美國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면 가장 유식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미국인이 유능하고 유식하다는 것은 전혀 우리 생각과 반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는 도대체 어디에 그 理由가 있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理由가 있겠지만 과도한 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자동화가 그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계의 사용으로 생산력이 늘어나고 생활이 편리해지기는 하겠지만, 그와 정반대로 人間の 모든 能力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醫學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診斷을 기계에 의존하여 처리할 때 醫師 자신이 할 수 있는 감지 능력과 판단력은 갈수록 퇴화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더욱 重要한 事實은 人間은 중국에 가서는 기계를 가지고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 정도로 모든 판단력마저 감퇴하여 버릴 것이다.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사용법이 쉽지않은 기계가 나오고, 기계는 또 다른 기계의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기계의 교체시간은 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에 必要한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이를 운영하기란 간단말인가?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첨단 의학기기가 그 使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연히 환자를 위압하기 위한 장식으로 쓰여지고 있는 기기가 아마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현미경 하나만 하더라도 그 용법을 정확히 익혀야만이 그 현미경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하물며 최근의 복잡한 기기들은 그 사용법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아가 기기가 제대로 使用된다면, 모든 판단을 기계에 맡긴다면 그러면 결국 醫師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기계 조종사인가?

아무리 기계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人間보다 나은 기계가 있겠는가? 단지 人間이라는 기계는 인간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문제이다. 개발만 잘 한다면 몇 수천대의 기계라 할지라도 한 人間을 당할 수 없으리라 특히 의학에 있어서 말이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계는 人間の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만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도리어 人間이 기계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겠는가?

V. 합성약의 문제점

藥物의 投與目的이 效果를 거두는데 있겠지만 그러나 藥이라면 어디까지나 服用後에 安全性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藥禍에 대한 統計가 없지만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100건에 1건 꼴로 약화가 발생하고 病院과 藥局의 경우 7~8건에 하나씩 藥禍가 發生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도로 약화가 發生하는 原因은 투약상의 過誤로 因한 것도 있지만 태반이 藥物自體가 가지고 있는 有害作用 때문이라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洋藥은 왜 이렇게 많은 問題點을 가질 수 밖에 없는지? 이는 洋醫學에 理論自體에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즉, 體內的 어떤 生理要素가 필요하다던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체내에 注入시키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

가장 알기 쉬운 例로 인슈린이 부족하다 하여 이를 합성하여 體內에 注入하여 糖尿病을 治療하는 것은 가장 과학적이고 合理的인 처치법 같지만 다시한번 생각하여 볼 때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 理由는 우리나라에서 生産되는 모종의 상품이 질이 낮고 수요에 모자란다 하여 外國의 우수한 商品을 그대로 수입하여 國內에 유통시키면 우선은 국민이 생활이 便利해질 수 있겠지만, 중국에 그 商品을 생산하던 工場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 축적되었던 기술이나 생산시설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슈린을 體外로부터 주입시키면, 미약하나마 인슈린을 생산하고 있던 體內的 기능을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면 우리 韓醫學에서는 어떠한 方法으로 이러한 病을 치료하고 있는가?

韓醫學에는 애초에 인슈린같은 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론이 통용되고 있지 않다. 즉 체내에 인슈린 生産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치료할 뿐이다. 다시말하면 韓醫學에서는 糖尿病을 中部에 熱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이라 보고. 그 축적의 원인이 思慮의 過度에 있느냐. 厚味の 過度한 섭취에 있느냐. 腎水의 부족에 있느냐 등을 따져서 치료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韓醫學的인 方法으로 糖尿病이 치료되었다면, 다시 재발이 잘 되지않을 수 있는 長點이 있는 것이다.

洋醫學에서 크게 자랑하고 있는 抗生劑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정상 生理機能이 유지된다면 어떠한 細菌도 體內에서 疾病을 야기시킬 수 없다. 細菌의 發生要因은 그대로 둔채 이미 發生한 細菌만 죽이는 方法은 하루속히 지양해야 될 方法이다. 그리고 이러한 方法을 알게 모르게 人類의 건강을 얼마나 옹치고 있나를 생각하여 볼 때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韓藥이라 하여 副作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韓藥은 辨證을 정확히 하고 이에 알맞는 虛方을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음을 단정할 수 있다. 단지 이 辨證과 處方의 구성이 高度의 技術을 要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그 方法이 어렵다하여 이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 方理가 옳다면 그 施行이 아무리 어렵다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개발하여 써야 할 일이다.

結 語

위에서 현대의학의 問題點에 대하여 몇가지를 論述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겠다.

1. 人間이 自然을 지배하고 나아가 人間을 生理作用마저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만이 眞實한 醫學發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疾病을 마치 악마와 같이 혐오하고 있는데 사실 疾病은 外部에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自體內에서 생기는 것이요. 우리의 健康을 維持하는데 필수부가결한 存在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醫學의 發展은 醫療器械과 藥品의 개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人間の 感知力의 개발과 생리기능의 正確한 理解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現代醫學은 그 醫學의 基本思想을 다시 검토하여 自然의 섭리에 순응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현대의학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가 해결되리라 사료된다. 즉 현대의학은 동양의학사상을 배타하지 말고 과감히 수용할 때 現代醫學도 發展할 수 있고, 東西醫學의 융합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1. 金駟舜: 醫學倫理, 연세대학교출판부, 서울, 1982.
2. 金泰昌: 생명윤리와 기술윤리(廣場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서울, 1984)
3. 박성대 역: 과학의 역사(S. F. 메이슨 저), 부림출판사, 서울, 1981.
4. 정 숙: 생명경영학, 법문사, 서울, 1984.
5. 한국카톨릭의학협회: 의학윤리, 수문사, 서울, 1984.